

7월-8월



이즈밀
한국어수업



앙카라
전ㄷ축제



에스키셰히르
전ㄷ축제

MERHABA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9월에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 불어오고 있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있는 이즈밀 지역은 아직도 35도 정도를 웃도는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새파랗기만 하던 하늘에 보기 힘든 구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보니
 여름이 곧 끝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달간 터키의 여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1. 이즈밀 한국어 수업

여름방학 두달동안 진행했던 한국어수업은 지난주 월요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일하셨던 베테랑 선생님과 함께 한 열명의 아이들은 빠르게 한국말을 익히며 나아갔고 생각보다 아카데미한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나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업이 끝나면 한국음식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두주는 단기팀이 함께 참여하며 춤과 노래 액티비티 등으로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은 내년 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금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활짝 열리고 진리가운데 서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 앙카라 교회 전도 축제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앙카라 교회이기에 주방이 작지는 않을까, 무대가 작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앙카라 교회는 너무나 크고 좋았고 역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바베큐파티로 맞이해줬고 배부르게 먹고 교제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축제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희는 단기팀과 함께 예상한 500인분의 한국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어마어마한 양의 밀작업 또한 굉장히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참여함으로 순식간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단기팀이 뮤지컬과 댄스등의 리허설로 인해 현지교인 몇명이 함께 참여하여 마지막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싸보는 김밥에 연신 사진을 찍어가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7시가 되었을때, 일주일동안 SNS, 버스정류장 전관광고, 2만장의 전단지 배포를 통해 많은 터키인들이 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500명에는 못미쳤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회를 찾아왔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터키인 예배팀의 찬양이 30분간 진행됐고 이후 한국에서 온 단기팀이 몇 개월간 준비해온 K팝댄스, 예수님에 대한 무언극, 크리스찬 영화 킹오브킹스를 편집한 영상, 워십댄스, 마지막 현지교회 목사의 말씀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한국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며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축제와 잔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온 400명의 사람들 중에 실제로 회에 등록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 땅에 새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 에스키셰히르 1회 전도축제

에스키셰히르는 이즈밀에서 앙카라로 오는길에 있던 지역이기에, 앙카라로 가는길에 잠시 들러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역을 하고, 앙카라 사역을 마치고 난 바로 다음날 다시 와서 동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한 공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카라와 달리 다소 협소한 장소로 인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무대에 10명이 올라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틀전 미리 와보았기에 저희는 앙카라에서 이곳 음식까지 대부분을 준비할 수 있었고, 무대에서도 숫자를 줄이고 동작을 줄이며 최대한 상황에 맞게 리허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의 열악함 보다는, 준비하며 현지 1회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되지 않고 오해들이 계속 되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수의 공격인것을 알기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키 셰히르에서는 예상했던 인원 150명을 훌쩍 넘는 약 250명 가량의 사람들이 1회를 찾아왔고 자리가 모자라 공연은 못보고 음식만 먹고 복음을 듣고 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학교들이 많은 이 에스키셰히르는 여름방학이 되면 도시가 다소 썰렁한 편인데 예상밖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1회를 찾아왔고,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 목사님과 우리안에 있던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1회를 알릴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와보게 된것만 해도 큰 일을 한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앙카라에 이어 두번째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단기팀은 더 담대하게 서둘지만 영어로, 또 구글번역기를 통해 터키어로 복음을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1도축제에 임했습니다.

옛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스키셰히르 도시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ㅎ렐루야!!



여름 사역을 마치며..

한여름 뜨거운 햇볕은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하늘 아버지의 열정은 그것을 능가하는 뜨거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터키 땅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특히 여름방학에 이루어지는 이 한국어수업 사역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는 당장 복을 전하지 못하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만나며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사역은 현재 전세계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과 원수에게 빼앗긴 우리 다음세대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꾀도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얼마가 걸릴지 언제 열매맺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하기에 포기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열방의 다음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무슬림 다음세대들을 위해 계속해서 같이 씨앗을 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앙카라와 에스키셰히르에 있었던 자도축제는 주변에서도 처음보는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무슬림 땅에 자도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K팝 공연이나, 한국문화축제는 최근들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복을 전하는 이런 형태의 축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일을 해오고 있던 단체가 있습니다. 터키안에 요청이 있는 회를 찾아가 일일차처럼 광고를 하여 복전 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를 방문하는 관심자들은 5명에서 10명, 많아야 30명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와 연결이 되고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을 통해 한국음식과 크리스천뮤지컬 워십댄스 등이 결합되면서 작년에는 이즈밀에 150명 올해는 앙카라 400명 에스키셰히르에 250명 등 갈수록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며 터키땅에 이전에 볼수 없는 규모의 자도축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역시 전혀 기대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즈밀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하게 되니 그곳 상황도 전혀 모르고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그 어느때보다 꾀도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수개월을 연습하며 꾀도하며 준비해온 단기팀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꾀도로 준비하며 주님께 맡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터키땅에 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다는 감동이 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그저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꾀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이 일이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이 번져나가도록 손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이 뿌려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일하여 주셔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맺을 수 있도록, 원수가 그 씨앗을 빼앗으려고 할때마다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연합하고 있는 터키현지 회와 바움 자도단체와 그리고 저희 엔게디 공동체가 더 낮은자세와 겸손함으로 온 마음다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여름의 사역보고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꾀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함께 꾀도로 동역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꾀도로 함께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이 보금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냅시다!

꾀도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편지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센릭 불순(살롬)